

살인 폭염에 민생행보 가속화

황인홍 무주군수, 영농현장 방문 피해상황 직접 살펴 대책 논의·급수상황 등 점검



황인홍 무주군수는 각 읍면을 돌며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영농현장의 어려움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업, 건설교통, 안전재난, 시설사업소 간부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은 각 읍면을 돌며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처로 주민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마을회관 등 68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재난도우미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안부전화와 방문을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전력수급 상황 등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시로 살수차를 운행해 지열을 식히고 있으며 그늘막 등도 설치해 주민안전에 힘쓰고 있다.

영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공유하는 등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도로정비 살수 차량을 이용해 가뭄이 심한 경작지에 물을 대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는 양수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발 기반 정비시설과 한해 대책 사업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황 군수는 17일에도 나머지 읍면 마을을 돌며 폭염 가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14일에는 안성과 설천면을 찾아 가뭄으로 인해 인삼과 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무풍면 한치마을을 찾아 급수상황도 점검했다.

또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 경로당을 둘러 병방상황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쉼터를 활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읍면에도 무더위 쉼터에 대한 수시점검과 세심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100%' 발벗고 나서

장수군, 1대 1 맞춤 컨설팅 직원 교육 실시



장수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장영수 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에 따라 1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1:1 맞춤 컨설팅 직원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와 직원 300여명에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분뇨법 개정(3월 20일)에 따라 지난 3월 25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사항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

했다. 이를 통해 16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전담 컨설팅공무원 289명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1:1전담 컨설팅 일제출장을 통해 565농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고, 적법화 전담 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을 결정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시대를 열어가고, 그 첫 번째 과제를 둔 버는 농업·농촌으로 삼았으며 그 첫 번째 담판 업무중 하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라 생각한다"며 "장수군 농업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절차 처리 미숙으로 적법화 추진을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00% 완성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황인홍 무주군수는 각 읍면을 돌며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안 용담향교, 고유례 봉행

진안 용담향교(전교 성수태)는 16일 용담향교 대성전에서 이항로 진안군수,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 이한기 전북도의회 의원, 강은희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조준열, 김광수, 정옥주, 박관순 진안군 군의원 취임 고유례를 봉행했다. 고유례는 국가나 개인이 중대한 일을 치른 뒤 또는 치르기 전에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명에 고하는 유가(儒家)의 의례로 예로부터 새로 취임한 고을의 수령이 향교에서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성수태 용담향교 전교는 인사 말씀을 통해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당선자들의 취임에 축하드리며, 진안군과 향교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취임 고유례를 준비해 주신 용담향교 성수태 전교 및 유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선 7기에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 환경을 보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사회복지대학 졸업식

진안군 제3기 사회복지대학(학장 김진) 졸업식이 16일 진안군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에서 진행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덕자, 박영애, 서준상 학생이 개근상을 김영배, 신건수, 한연수 학생이 정근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은영 학생대표가 학장상, 김귀순 학생이 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제3기 학생대표를 맡았던 김은영씨는 "20주에 걸쳐 수업에 참여하면서 목요일이면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과 함께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송상모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께서 배움을 토대로 그늘진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행복한 진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학구열을 가지고 사회복지대학을 졸업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돌봐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제3기 사회복지대학은 올해 4월부터 20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도시재생대학 종강 발표

장수군은 장수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종강 발표 및 수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대학 과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선진사례, 세부사업계획 세우기 등 8차로 이뤄졌으며, 이날 그동안 직접 구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 앞에서 발표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과정 수강생들은 열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고, 전체 수강생 30명 중 총 17명이 수료했다. 한 수강생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어렵게 다가왔는데, 다른 사례도 보고 우리군에 직접 적용시켜도 보면서 우리군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알게됐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영수 장수군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료생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어 갈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16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무주군 공무원 친절교육 차명호 박사 초청 '호응'

무주군은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선 7기 무주군이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으로, "상당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저자 차명호 교수(평택대)를 초빙해 '공감하며 소통하는 친절 레시피'라는 주제의 강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차명호 교수는 성공하는 행정은 원활한 소통에서 비롯된다며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 그를 통한

공감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친절이 시작되는 것인 만큼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친절과 함께 발휘돼 민심이 배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내가 민원인이 됐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해 봐야겠다"라며 "행정은 결국 나 혼자 일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력이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친절 레시피를 짜야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